S 칼텍스

뉴스홈 | **최신기사** 

# <월드컵축구> 남북한 같은 고민 '중원 공백'

송고시간 I 2009-03-30 20:33













배진남 기자 기자페이지

<월드컵축구> 남북한 같은 고민 '중원 공백'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4월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맞대결을 벌일 남북한 대표팀이 '중원 공백'이라는 같은 고민에 빠졌다.

한국 대표팀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게 된 미드필더 조원희(위건 애슬레틱)가 종아리를 다쳐 출전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허정무 감독은 경고 누적으로 북한과 대결에 뛸 수 없는 김정우(성남)의 공백을 메우려 조원희를 불러들였다. 하지만 조 원희는 지난 28일 이라크와 친선경기에서 기성용(서울)과 선발로 나와 호흡을 맞추다 오른쪽 종아리에 타박상을 입었

조원희는 29일 회복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았고, 30일 오후 훈련 이 진행된 서울월드컵경기장는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전날 훈 련 중 오른 발목을 삐끗한 공격수 배기종(수원)과 함께 최주영 의 무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따로 훈련했다.

대표팀 관계자는 상태가 호전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팀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조원희의 북한전 출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원희가 빠진다면 현재 대표팀에서 기성용의 짝으로 기용할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 자원은 한태유와 김치우(이상 서울)를 비롯 해 A대표팀에 처음 발탁돼 이라크전에서 데뷔전을 치른 이상호, 박현범(이상 수원) 등이 있다.

북한 대표팀도 안영학(수원)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남북대결에 뛸 수 없어 중원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6월 월드컵 3차 예선 투르크메니스탄전(1-0 승)에서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안영학은 지난 UAE전에서 다시 옐 로카드를 받아 한국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안영학은 현재 소속팀 수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북한 대표팀에서 훈련하고 있다.

북한 대표팀은 주로 안영학과 김영준이 중앙 미드필더로 호흡을 맞춰왔다. 하지만 최근 사우아라비아, UAE와 두 차례 월드컵 예선 홈 경기에서는 김영준 대신 지윤남이 들어가서 왼쪽 윙백을 맡고, 측면 공격수로 뛰던 박남철이 중앙으로 배치됐다.

박남철은 왼쪽 공격수 홍영조와 수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북한 공격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하지만 안영학의 결장으로 다시 중앙 미드필더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hosu1@yna.co.kr



1010회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체포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관련기사	<월드컵축구> 박주영 "동반진출도 좋지만
	<u>│</u>
	정대세 "부모께 남한전 득점장면 보여줄 것
	김연아 "월드컵축구 남북전 보러 가요"
	<월드컵축구> 진화하는 북한 '만만찮네'
	<월드컵축구> 허정무호 골 결정력 '글쎄'
제보는 카카오톡 ok	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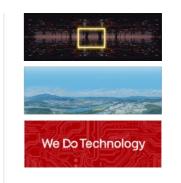
## 현장 영상 →

▶ 02:22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 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50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0 힐 예정"

뭐하고 놀까? ##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별뉴스**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 앱
 보다시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고,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nnev